

민간우주시대 개막...이노스페이스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

253억원 투입 발사체 시험 인프라 조성...소형발사체 제조시설 입주 계획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제2우주센터 유치도 추진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전초기지인 고흥에 국내 최초의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이 등지를 틀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고흥읍 포두면에서 ㈜이노스페이스가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선 김영록 전남지사와 문금주(민주·고흥, 보성, 장흥, 강진)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김수중 이노스페이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노스페이스의 고흥 종합시험장은 3만 3348㎡ 부지에 총 253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주도의 발사체 시험 인프라다.
25t급 하이브리드, 3t급 액체(메탄) 등 추진기관 연소시험시설, 발사대 기능 및 단조립·단인증 시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남도는 이노스페이스의 종합시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향후 상업발사를 위한 다양한 발사 시험을 통해 이노스페이스가 전남도와 함께 민간 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한빛-TLV'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올해 하반기 위성 5개를 탑재한 '한빛-나노'의 첫 상업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전남도와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맺고 향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부지가 조성되면 소형발사체 제작·연구개발을 위한 제조시설 입수도 계획하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우주청과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대가 큰 상태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차세대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 등 다양한 발사체 인프라를 갖춘 제2우주센터도



22일 고흥 포두면에서 열린 '이노스페이스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문금주 국회의원 등 주요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노스페이스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전과 혁신으로 증

명한 기업으로 기술 자립을 넘어, 상업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세계적 민간 우주기업으로 도약하리라 확신한다"며 "전남도는 이노스페이스가 'K-우

주 챔피언'으로 성장해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를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전북과 산업부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공모 선정

6년간 180억원 국비 확보

전남도가 전북도와 함께 '2025년도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6년간 180억원 지원받아 전력계통, 에너지 저장시스템, 수소에너지 등 지역 내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도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전북대, 전주대 등 전남·북

8개 대학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앞으로 6년간 국비 145억원, 지방비 34억8000만원 등 약 180억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사업은 전력계통,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에너지 등 3대 분야로 전력계통 운용과 관련 기술 분야의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지역 인재 감소와 전문 인력 양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기업-혁신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문 인력이 호남권에 정착하도록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술 공유 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 및 공유하고

지역 에너지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학 연계 프로젝트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전남도는 참여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과 특화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전문성을 강화해 핵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호남권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급증하는 해상풍력 등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북, 에너지전환 협력 나선다

오늘 정책간담회

광주·전남·북이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 '호남권 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2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과 올해 3월 협약에서 명시한 신재생 에너지의 권역 내 우선 활용·에너지원 공동개발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3개 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전북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분야 공동 발전과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메가시티 첨단산업 육성 공모사업 연계 전략',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동 개발과 공동이용 방안'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전북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두고, 호남권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면서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성장형 에너지 전환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서도 '외국인 노동자 월드컵 축구' 열린다

제1회 대회 25일 광주대 축구장
네팔·베트남 등 8개팀 150명 참가

제1회 광주시 외국인노동자 축구대회가 25일 열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2025 광주시 외국인노동자 축구대회'를 25일 오전 11시 광주대 축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축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동체 의식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8개팀 15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참가한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당일에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주대한국어학과,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가 참여하는 상담 부스와 먹거리 부스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결승 경기 종료 후 시상식이 진행된다.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패어플레이상을 수상한 팀에게도 별도의 상상이 주어진다.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이번 축구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다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4월부터 광산구에 흑석동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상담, 한국어 교육, 법률·노무 상담,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기록관 단편영화 '오월' 5·18영화제 대상

제5회 5·18영화제에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자체 제작한 단편영화 '오월'이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록관에서 제작한 단편영화가 올해 5·18영화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5·18영화제에는 총 150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단편영화 '오월'은 현대적 감각의 연출과 세대 간의 기억을 섬세하게 연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21분 35초 분량으로 실사와 3D애니메이션기법을 모두 활용해 만들어진 단편영화 오월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연출로 꾸며졌다.
현재의 모습은 실사로 촬영됐고 과거 회상 장면은 3D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모든 세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으로 제작됐으며, 현재 기록관 3층 영상실에서 상영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